

# 회원님들의 최근 활동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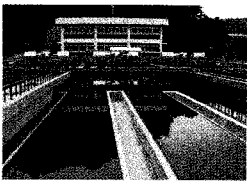
### 빗물펌프장, 도심속 생태공간으로 탈바꿈



환경부는 도시지역 내 유휴공간인 우수지(빗물펌프장)를 수질정화기능과 생태기능을 갖춘 '생태습지'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생태습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유수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전국 450여개 우수지를 대상으로 생태유수지 조성사업 적지를 발굴하고 이들 지역이 도심속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태유수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 휴가철 피서지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실시



환경부는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시·도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의 음식점과 숙박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분뇨를 무단 투기하는 등의 위반을 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국수자원공사

### 중소기업과 환경경영 지원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는 과전에 있는 수도권지역본부에서 ISO 인증기관인 한국품질재단, 수도기자재 공급 협력기업인 동아정밀공업사, 서광공업(주), (주)산정기공과 '중소기업 환경경영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회사가 환경친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경영 교육, 인증비용 지원 등 다양한 환경경영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회사는 환경관리 역량 및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수자원공사는 협력회사로부터 고품질의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받게 되는 상호 win-win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한국토지공사

### 대전충남본부 '대청호 생태보전' 운동 앞장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가 대청호 생태보전을 위한 운동에 적극 나섰다. 토

공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역환경단체인 대청호 보전운동본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청호 토종어종 보호를 위한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북 옥천군, 옥천 금강어촌 계영어조합, 지역주민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약 6개월에 걸쳐 외래어종(배스, 블루길) 수매, 토종어종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청호 정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수질보전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 주말 한강쉼터서 아리수 무료공급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을 위해 매

주 주말 '아리수' 페트병을 무료로 공급하고 시내 각 학교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아리수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시민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 일요일 낮 12시부터 한강

변 자전거도로 주민쉼터 12곳에서 350ml 들이 아리수 페트병을 매주 1만4,400개 가량씩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여름방학 기간동안 시내 160개 초·중·고교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2010년까지 총 630개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한강변 쉼터나 학교, 유치원 등지에서 손쉽게 아리수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직접 느끼도록 하는 한편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

### 품질경영·환경경영 국제인증 획득

인천환경공단은 7월 8일 하수처리, 위생처리, 생활



쓰레기 소각, 음식물자원화, 스포츠센터운영 등 공단사업 전 부문에 대한 품질경영시

스템(ISO 9001) 및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국제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독일의 ISO 인정기관인 DAR-TGA에 등록된 MSA인증원으로부터 공단 사업에 대해 공인받게 됐다. 박정남 공단 이사장은 "ISO 인증을 통해 공단이 추구하는 주요 경영방향인 친환경 경영과 고객만족 경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뒷받침이 된다"며 "공단 전 사업 분야에 대한 업무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광역시

### 물축제 프로그램 확정



대전시가 전국적인 명품축제 만들기를 기치로 추진하는 'H<sub>2</sub>O 페스티벌'의 세부 프

로그램이 확정됐다. H<sub>2</sub>O 페스티벌은 물을 주제로 예술과 과학을 엮어 H<sub>2</sub>O Zone(물 구역), Water Art Zone(물 예술구역), Water Science Zone(물 과학구역), Water Sports Zone(물 스포츠구역) 등 4개의 구역으로 나눠 대전시립미술관 야외무대 축

하 공연을 시작으로 둔산대공원, 엑스포 남문광장, 갑천 일대에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열린다. 과학적 의미의 물(Hydro)과 문화예술주체인 인간(Human), 그리고 과학과 문화예술 융합(Orchestrated)의 의미를 담아낼 이번 제1회 H<sub>2</sub>O 페스티벌에는 엑스포과학공원과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상수도사업본부, 서구청, 충남대학교, 하나은행 등이 참여해 각각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충청남도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홍보활동 강화



충청남도가 비브리오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에 나섰다. 비브리오균(Vibrio

vulnificus)은 보통 7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하지만 7월~8월 20°C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며, 간질 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세균에 오염된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섭취했을 때 발병될 수 있다. 도는 평소 간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 등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가 여름철 수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는 것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활동을 위해 어패류 취급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주민들에게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학교급식 및 군납 등 생산·공급업체에 대한 중점관리·지도와 위판장, 양식장, 가공공장 등 위생안전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전라남도

### 하천부지내 경작지 농약사용 수질오염 주범

전라남도가 하천부지 내 경작지에서 농약과 제초제, 비료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우수기 전후인 7월~8월에는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부지 내 경작지에 다량의 농약이 살포된다. 이 시기에 살포된 농약은 살충제로, 독성이 강해 농약잔류물이 하천으로 흘러들 경우 수질 오염은 물론 어패류 등을 통해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홈페이지, 반

상회보, LED 전광판, 지역 유선방송 등을 통해 하천부지 경작지내에서 농약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또 하천부지 경작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산강 일대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해당 시·군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경작자를 대상으로 홍보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강화



제주시는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무단 배출 등 각종 불법행위가 우려됨

에 따라 오·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에는 특별단속반 축산폐수, 오·폐수 등 2개소를 편성, 장마기간 동안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감시활동 기간에는 읍·면·동에도 특별감시반을 운영하고 감시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며, 휴일에도 감시활동 체계를 유지키로 하였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무단배출여부, 오·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오염물질 적정처리, 운영일지 및 유량계측기 일치여부 등을 확인,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번없이 128이나 인터넷, 그리고 해당 환경부서에 신고토록 당부하고 있다.

## 남양주시

### 수돗물 "다산水" 독점 사용권 획득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수돗물 브랜드 '다산水'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업무표장, Business Mark)등록 결정이 내려져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

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양주시에서는 수돗물 불신해소와 '다산水'라는 브랜드 이미지의 정착을 위해 병입 수돗물을 무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품질 좋고 이용이 편리해 공급량이 증가하여 상반기에만 2007년도 전체 공급량의 250%가 증가한 4만7,000여 병을 공급한 상태다. 남양주시 박홍길 수도과장은 "그동안 남양주시에서는 수돗물의 냄새와 맛을 개선하기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시설과 이산화염소 발생시설을 도입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 수돗물에 근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금번의 상표권 획득은 이러한 사업추진에 힘과 책임감을 실어 줄 것으로 보며 앞으로 수돗물 생산 공급과 서비스에 차별화된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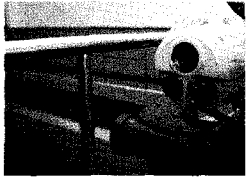
### 전국 최초 상수도 요금 10% 감면



경기도 안양시가 상수도요금을 2년째 동결한데 이어 이번엔 감면을 추진해 시민과 기업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시는 최근 유류값 폭등으로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1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도를 사용하는 안양의 모든 수용가는 7월 납기분부터 일률적으로 사용료의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되며 요금감면 혜택은 오는 12월까지 계속된다. 이를 따져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25m<sup>3</sup>(2만5,000ℓ)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현행 9,150원의 10%인 915원 감면된 8,235원만 납부하면 되며 물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의 월 평균사용량으로 따져보면 업무용(월 평균 280m<sup>3</sup>)의 경우 2만 6,960원을, 영업용(월 평균 125m<sup>3</sup>)은 1만 1,115원을, 대중탕용(월 평균 530m<sup>3</sup>)은 4만4,520원을 각각 감면받게 된다. 한 시민은 "기름값 상승으로 공공요금도 따라서 오르는 게 현 추세인데 생활과 밀접한 수도요금을 내린다니 매우 고맙고 반갑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용인시

###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추진



경기도 용인시가 지역 내 하수처리 시설에 수질원격 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TMS는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처리수 방류구에 수질오염도 검사 지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수질정밀측정시스템으로 환경부에서 각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용인레스피아의 TMS 구축 공사를 착수해 10월에는 시험 가동할 계획이다. TMS를 통해 COD, SS, T-N, T-P, ph, 유량, 수온 등 지표항목을 검사할 수 있으며, TMS는 올 11월 19일까지 전국 하수처리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 태백시

### 한강발원지 검룡소 '쉼터' 조성



강원도 태백시는 한강발원지인 검룡소 생태계 보전 지역 내에 쉼터를 조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7,500만원을 들여 검룡소 일대에 자연판석 64㎡, 잔디 380㎡, 파고라 1개, 세면시설 1개 등을 설치하여 검룡소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검룡소는 일일 2,000여 톤의 물이 쉼 없이 솟아나오면서 곧 바로 20여m의 완만한 폭포를 이루며 쏟아지는 장관을 연출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함께 태백기린초, 태백제비꽃, 금강제비꽃, 섬기린초, 솔나리 등 300여 종의 식물이 자라는 9,850㎡의 야생화 테마공원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산상의 야생화원인 대덕산 금대봉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검룡소는 서해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머무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 홍성군

### 장마 재해 대책 완료

충청남도 홍성군이 여름철 침수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홍성읍, 광천읍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작업을 완료했다. 홍성군에 따르면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입, 홍성읍의 오관9구 외 5개소와 광천읍의 장현마을 외 6개소 등 모두 11개소에 대해 하수도 보수공사를 마쳤다. 또 홍성읍 23개소와 광천읍 4개소 등 모두 27개소 1.8km에 대해 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수도 준설작업을 끝냈다. 사업에 앞서 군은 홍성읍과 광천읍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하수도 균열 및 파손지와 퇴적물로 인한 배수 불량,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한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장마철전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시켜 왔다. 홍성군 관계자는 "하수도 사업 완료로 여름철 침수피해 사전예방이 가능하게 됐다"며 "하수의 지하유출 방지로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도시환경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산시

### 수돗물 '안심' 발표



충청남도 서산시는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의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돗물 안전을 확인했다. 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수돗물에 대해 총 55개 항목으로 나눠 수질검사한 결과, 전 항목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일반 세균, 대장균군, 불소 등은 불검출했으며 질산성 질소나 염소 등도 기준치와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 밖에 유·무기질 등의 항목도 불검출 내지는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수도꼭지 수질조사지점을 기존 20지점에서 24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농촌 무료지하수 수질검사는 성적서 핸드폰 문자전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산시는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2011년까지 75%로 늘릴 계획으로 현재까지 12개소의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고 연말까지 8개 마을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추가 전환키로 했다.

## 과산군

### 감물에 농어촌 상수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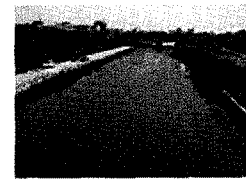


충청북도 과산군은 감물면에 2011년까지 65억원을 들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

진한다. 군은 감물지역에 배수지 1곳, 관로 34km를 매설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확충을 통한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생활용수 급수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원을 투입해 설계를 끝냈고 2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8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 2011년부터 감물지역 16개 마을 1,600여 명의 지역주민에게 충주댐 광역상수도 급수혜택을 제공해 보건위생과 복지 증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조기에 수도관 매설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다음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협조와 사업추진에 따른 건의, 불편사항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 청주시

### 무심천 1급수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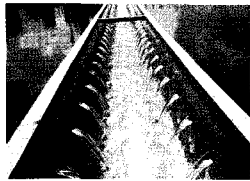
충청북도 청주 도심을 흐르는 무심천 수질이 1급수로 판명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무

심천 등 관내 9개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오염도 조사결과 무심천은 환경정책 기본법상 1b급수 평균 BOD가 1.3mg/l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4분기 수질 BOD 2.1mg/l에 1등급보다 한 단계 높

아진 것으로 수생정화식물을 심고 자정작용을 돕는 여울이나 하중도, 거석 등을 만들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월운천, 울랑천은 Ⅰ급수, 명암천, 발산천, 가경천은 Ⅱ급수, 영운천, 석남천, 미평천은 Ⅲ급수로 측정됐다. 이번 측정은 시의 수질관리과 등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수온,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등 6개 항목에 걸쳐 검사됐다.

## 마산시

### 수도관련 장치 개발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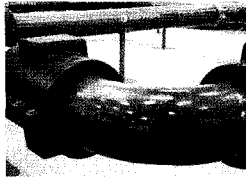
경상남도 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근무하는 이해기씨는 지난 5월 특허

청에 근무 중 착안한 수돗물공급용 감압밸브의 압력제어장치를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신청했다. 이 결과 관련기술 2건이 특허청으로부터 마산시 명의로 특허결정 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씨가 이번에 획득한 특허는 수돗물공급 배수관로에 압력조절밸브인 감압밸브를 원격으로 급수 수요시간 및 수요량에 맞추어 언제든지 적정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이다. 또한 수돗물을 최대, 최소 수요시간대 구분 없이 언제든지 적정압력으로 제어토록 하여 누수방지 효과 등 감시와 제어를 원격으로 조정하도록 해 인력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의 특허는 앞으로 국제특허 신청 및 특허권을 관련 기업체와 협약 체결하여 상용화를 추진함으로써 시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관련기술에 대한 전국 상수도분야 학술지에도 발표돼 환경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채택 방법 등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 울주군

### 우수기 대비 하수도, 배수로 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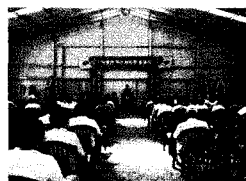
경상남도 울주군이 본격적인 우수기를 앞두고 지역 내 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및 배수로 준설에 나선다. 울주군에 따르면 하수도와 배수로에는 겨울철 갈수기 동안 쌓인 퇴적물과 생활쓰레기가 우



수기 동안 빗물의 유입으로 인해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 수질오염은 물론 부영양화로 인한 물고기 폐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태화강과 회야강 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 모두 3만m에 이르는 하수도와 배수로를 본격적인 우수기 전에 준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갈수기 동안 지역 내 하수도와 배수로에 각종 퇴적물과 쓰레기가 뒤엉켜 있어, 우수기 빗물 유입을 통해 한꺼번에 태화강과 회야강 지천에 배출될 경우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우수기 전에 관내 인구 밀집지역의 하수도와 배수로에 쌓여 있는 각종 퇴적물을 완전히 제거,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남해군

### 이동면 하수처리시설 완공



경상남도 남해군이 하천과 바다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이동면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완공했다. 지난 2004년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끝낸 이동 하수처리시설은 2005년 9월 공사를 착수한 뒤 2년 8개월여 만에 완공됐다. 총 사업비가 133억 8,000여 만원이 투입된 하수처리시설은 1일 생활하수 처리용량이 600톤으로, 오수·우수관로가 27.3km, 오수 맨홀펌프장 6곳, 전기 및 계측제어시설 등 친환경 공법의 최신 설비를 갖췄다. 군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 완공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위생 향상, 침수 예방 등의 효과와 함께 연안수질 개선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구미시

### 하수처리율 97% 정화조 없는 도시 조성

경상북도 구미시는 대대적인 하수관거사업과 하수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2010년 하수처리율 97% 목표를 정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정화조가 없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선산 하수관거공사를 5년여 만에 완료해 전국에서 하수도 보급률이 제일 높은 친환경도시로 면모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선산 하수관거공사는 공장 오폐수와 생활하수를 선산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해 주거 환경 개선, 하류지역 식수원 보호, 낙동강 수질보존을 위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공중인 산동하수처리시설, 읍면지역까지 하수처리구역 확대한 지산, 산동, 구미, 도개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이 2010년 준공되면 구미시의 하수처리량은 1일 45만7,500톤, 하수관거 1,231km로 하수처리율이 97%로 향상돼 전국에서 최초로 정화조가 없는 친환경인 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 상하수도인이면  
누구나 보는 협회지에 회원 여러분의  
최근 소식을 담아보세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세요?

보도자료(사진자료 포함)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회원님들의 소식을 소중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보내실 곳

홍보팀 신재택 팀장, 공석진 대리  
Email : myakong@kwwa.or.kr  
Tel : 02-3156-7733